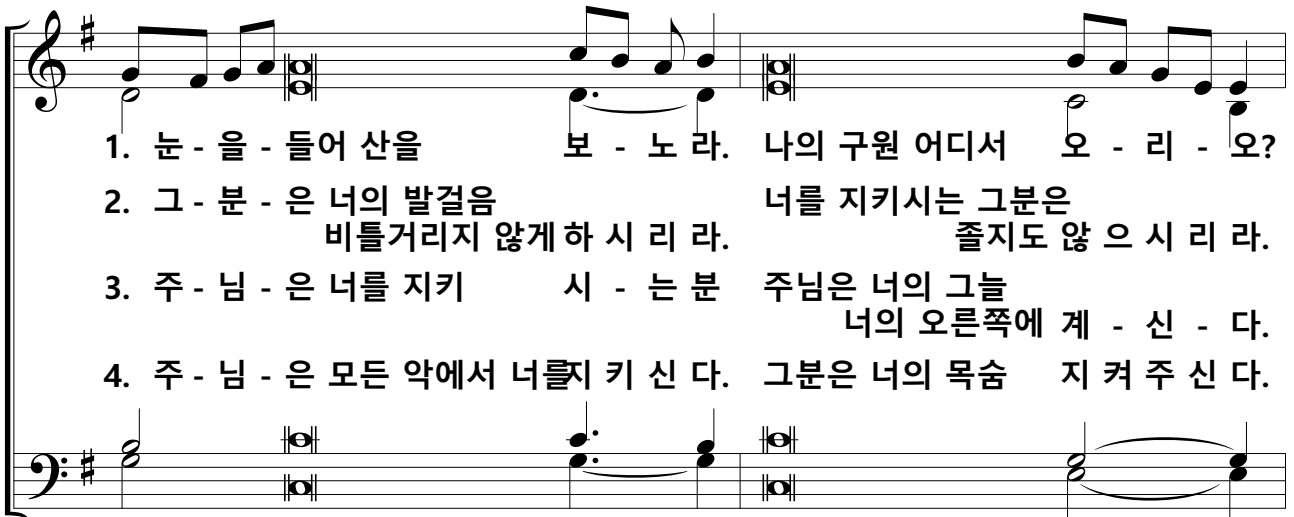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29 주일 화답송 [다해]


시편 121(120), 1-2. 3-4. 5-6. 7-8



(후렴) 우리 구원은 주님이름에 있으니,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.



1. 눈 - 을 - 들어 산을 보 - 노 라. 나의 구원 어디서 오 - 리 - 오?
 2. 그 - 분 - 은 너의 발걸음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
 비틀거리지 않게 하 시 리 라. 졸지도 앓 으 시 리 라.
 3. 주 - 님 - 은 너를 지키 시 - 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
 너의 오른쪽에 계 - 신 - 다.
 4. 주 - 님 - 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 키 신 다. 그분은 너의 목숨 지 켜 주 신 다.



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 - 리 - 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- 이 시 다.
 보라, 이스라엘을 지 키 시 는 분 졸지도 앓 으시리라.
 낮에는 해도, 밤에 는 - 달 - 도 너를 해치지 못 - 하 리 라.
 나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 키 신 - 다. 이제부터 영 - 원 까 지.